화석연료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kth@enet.or.kr*)

최근 시민사회,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화석연료사용 저감을 위한 에너지 시민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으로는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실천운동으로는 에너지 절약 20/20운동, 대기전력 제로운동, 최저소비효율제도 도입, 고효율 전동기 확대운동, LLCC(최소전과정비용)에 기반한 효율기준 채택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전환 활동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소형열병합 등 분산형 전원 확대, 환경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기본법 제정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단체의 최대고민은 원자력 발전을 장기적으로는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그렇다면 당분간 LNG등 화석연료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_2 저감 노력에 대한 단체의 고민은 몇 배의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정공정 기술을 극대화 등을 통한 CO_2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